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호 [루체 제22972호] 주제99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워놓은 힘으로 통일에 투입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승리자의 신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은 평신훈련이며 장군님을 따르면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오늘 우리 조국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지개벽의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결심, 비범한 영도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 주신 새해전투의 불길드높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혁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신심과 땀魄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둘진하여야 합니다.』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대고조에 따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들고 풀풀같이 내달려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였다. 당의 영도밑에 전인민적인 흥겨운 사정이 벌어지는 속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나고 인민의 리상이 빙드시 빛나게 실현되며 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진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대담한 작전과 무한대한 정력으로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을 끊임없이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를 진두에 모시었기에 인민생활상을 위한 올해의 충진군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승리자의 신심, 그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의 결의, 정신력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커다란 자부심이다.

오늘의 거창한 대고조진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놀라운 승리와 성과는 일심단결의 승리, 정신력의 승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사이의 숭고한 밀음과 고결한 충성, 오늘의 대고조에서 영웅 조선의 본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보람찬 파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당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때 대한 전투적 파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의 대고조진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강성대국의 평마루에 최후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한 총공격전은 시작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으로 놓았을 올해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흥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짜워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의한 의지와 무비의 공격정신으로 결집을 이니시고 새해 초본부를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대고조를

승리로 이끌고자 한다.

올해 충진군속도를 높여 나가자면 누구나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발하고 또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응암처럼 끊어져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인민군인들이 전투를

벌리고 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영웅적 훈파

높은 사업실적으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풀피우기 위하여

현인분투하여야 한다.

올해 총공세의 전격속도를 최대로 높이자면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녀야 한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서 부려운 것 없는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선군조선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가

보여줄 만한 투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우리들의 심장마다에 빛은 자기 땅에 불고 있는 눈으로 세계를 나온다는 담대한 기상, 조선사람은 그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짱, 세계를 헤아리는 책임자로서 모든 보분야에서 퍼포먼스를 따라앞서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응암처럼 끊어져나가야 한다.

올해 충진군속도를 높여 나가자면 누구나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발하고 또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응암처럼 끊어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충진군속도를 높여 나가자면 누구나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발하고 또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응암처럼 끊어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충진군속도를 높여 나가자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으로 동계급은 경제건설과 민생활

환경을

돌파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균형화된 혁명의 봄을 살피고 대단히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기세를 더 옥고지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신심과 땀魄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 대종의 앙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첫 걸음부터 기세 좋게

신성천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품입니다.』

울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날 신성천객화차대 대장 정금철동무는 설레이는 마음을 암고 대와 산하중대, 소대들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그러하듯 세된 금속성이 끊임없이 울리고 용접의 불보라 그질새없이 날리는 화차들, 리현장들에서도, 갖가지 종류, 각이한 형태의 화차수리용부속품들과 단조품들을 생산해내는 준비중대의 가동장장과 단조장에서도 객화차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이 세운 첫 전투목표수행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다. 역구내선 곳곳에서는 책임성높은 겹차공들의 겸사마치기로 연방기탁에게 울리고 또 울리었다.

얼굴표정도 몸가짐새도 자연으로 나누는 말마디조차 진장감을 느끼게 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은 미처 냉금출발선을 떠난 초간장상태의 점단별리기 선수들을 방불케 하였다.

문득 정금철동무에게는 공동사설을 받아인기 빠르게 찾아와 하던 준비중대장 향승학동무의 목소리가 가슴뜨겁게 울려왔다.

『우리 중대는 이미 세운 월부속품 및 단조생산목표를 1. 5배 이상으로 혼낼것을 제

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준비중대장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다. 안방침한 근거도 밀음직하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첫걸음부터 체험을 밟고 10월 1일 대축전장으로 냠다 달려 가려는 그 대심과 의지가 더 중요한것이 아簟다.

대장 정금철동무도 그의 체기를 적극 지지해주었다. 의혹과 감탄의 눈빛들이 엇갈리는 그 자리에서 정금철동무는 울해공동사설에서는 4대 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판차이며 인민생활문화를 풀기 위한 판관진인 고리이라고 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고조의 불길은 한두차례 전투에서만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총공세의 해인 울해에 어제날의 성과를 놓고 널널이 걸어갈 생각을 해서야 어떻게 신성천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신성천사람, 대장의 그 말은 순간에 사립들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우리 나라의 서부와 동부, 중부내륙지대를 험경하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신성천에서 험한 만날수 있는 사람들은 다툼이 아닌 철도종업원들이다. 비록 시, 군에 자리잡은 다른 철도국들처럼 도움을 받을 힘없이 복지와 단조품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내어 화차의 성과에 수준에 이비지하였다.

미더운 수리증대의 전투원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첫번째 차량수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끌냈다. 이어 두번째 차량수리는 첫번째의 보다 절반으로 쭉 당기여 새것처럼 만들어놓았다.

신성천철도분국관련을 지나는 협차들의 기적소리가 날마다 정답게 울리던 어느날 객차차대 앞에는 저승율동운운용화차 2량을 시급히 수리해야 할 급파를 차고 나섰다.

중장 김명준동무는 당장 전투원들은 그 기세로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드세게 압력을 밀어제기고 있다.

대부분의 소대원들이 어제날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었던 체대군인들이니. 비록 초소는 달리자고 군복은 벗었지만 그들은 범시점에서도 그러했듯이 달려온 일무앞에서 언제나 『알았습니다!』라는 한마디 대답밖에 모른다.

소대원들은 누구나 수천척짜리 막장을 전호로 여기고 공격전에 나선 병사의 그 정신, 그 기세를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마다 첫걸음을 끝으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을 차고 달려온 일무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줄 동발이 있으면 다른 막장을 보내주십시오. 써우는 고지에 병사들이

충탄과 포탄을 날리더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전호를 자기 힘으로 지

키고 자기 앞에 가로놓인 난관

</div

6. 15 통일시대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 나아가자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세해공동사설의 호소에 호응하여 혁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울해를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 할 일정으로 조국통일대행진을 다그치고 있다.

자주통일시대와 더불어 더욱 뜨거워지는 온 거제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울해공동사설은 온 민족에게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 구호는 뜻깊은 울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6. 15 통일시대의 궁지높은 혁사를 계속 벌내이며 그것을 자주통일 위업완수로 이어가려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의지와 신념의 반영이다.

위대한 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 15 북남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위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은 온 조국강토를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끌어모으게 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자주통일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은 온 조국강토를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로 끌어모으게 하고 조국통일운동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자주통일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불멸의 통일대강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사변이 있다. 6. 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분별과 대결의 장벽은 밀부리쳐 뒤집히고 온 거제는 신심드높이 조국통일대행진을 광범위로 벌여올 수 있었다.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은 온 조국강토를 민족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운동으로 확장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의 전민족적인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온기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거제적인 투쟁에 결연히 펼쳐 나서야 한다.

6. 15 통일시대가 열어준 자주통일, 평화변혁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가로막는 민족의 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

자주통일과 평화변혁의 전로가 환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뿐만 아니라 확증으로 된다.

우리 민족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기치따라 전진해온 지난 10년간의 혁사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민족의 분별주의 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넘원을 이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날이었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자주통일의 궤도에 확고히 울려세웠다. 북남공동선언들은 민족성원들의 가슴속에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대를 신념의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주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대단결의 초석을 마련해주었다.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판계로 전환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변혁의 활로를 열어줄것도 있다.

현실은 온 민족은 분별주의 세력들로

이제는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혼란과,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

이 중요하다.

6. 15 통일시대를 전진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결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에 국제력들이 분별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답보로 된다. 6. 15 이후 지난 10년간 온 민족의 분별주의 세력을 압도한 혁신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날로 확장되며 온 민족의 대단결은 투쟁에 기초한 민족의 단합된 투쟁의 결실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사상과 제도, 정관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경제,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건히 단결하여야 한다.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는 경계한 후정이 없다면

6. 15 통일시대에 우리 민족이 이

록한 조국통일운동의 귀중한 성과들이 말살될 것이다. 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런 업종한 사례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6. 15 통일시대가 열어준 자주통일, 평화변혁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무엇보다 그것을 가로막는 민족의 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는 안락의 분별주의 세력들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반통일 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행위를 가로막는 반민족적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동족은 적대시하고 친략적인 외세와는 입을 맞추며 북남공동문제에 외세를 꺼들이고 그와 약합하여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선택포기』를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원칙과

나우니』하고 떠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외교하고자 한다.

한편 터무니없이 『핵당사자』를 들고나오면서 외세와 함께 반

공화국내 대결장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에 국제

정하고 반통일 대결정책을 추구하며 대화를 하고 협력과 대결의 판계로 고착시키려는 시대적 오적인 망동과 광장나마다 한다. 남조선의 각계 통일 세력들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발전시키고 그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적인 반전평화수호운동으로 강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새 전쟁의 위험을 물어오는 온 민족의 혁신 세력들의 책동을 저지로 힘을 얻고 서로 대처하고 협력하여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벌리고 그에 벌려나가야 한다. 하여 온 민족안에 자주통일기운이 넘쳐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야 한다.

6. 15 통일시대를 전진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기초한 온 민족의 대단결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에 국제

력들이 자유로이 대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협력과 대결을 강화해 나가며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려이 하

고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 수 있다. 해내외의 통일 운동단체들과 각각 각종 인민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을 암고 서로 대처하고 협력하여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발전시키고 그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 나가야 한다.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혁신 세력들은 저지로 힘을 얻고 서로 대처하고 협력하여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15 통일시대를 전진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기초한 온 민족의 대단결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에 국제

력들이 분별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답보로 된다. 6. 15 이후 지난 10년간 온 민족의 분별주의 세력을 압도한 혁신의 책동에서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이 날로 확장되며 온국세력이 분별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편연이다.

우리 거제가 나아갈 길은 민족자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6. 15 통일시대의 귀중한 성과들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우리 거제의 각오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북파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새해공동사설의

호소 따라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뜻깊은 2010년을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혁신 세력으로

대한민국으로 떠나야 한다.

동포들사이의 애왕과 접촉, 대화

와 혼란과 함께 힘을 널리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해내외의 모든 동

포들이 자유로이 대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협력과 대결의 판계로 고착시키려는 시대적 오적인 망동과 광장나마다 한다. 남조선의 각계 통일 세력들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벌리고 그에 벌려나가야 한다. 하여 온 민족안에 자주통일기운이 넘쳐나고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향유로 힘을 고취하고 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인에 대한 흠토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법이다.

잊을수 없는 10년전 6월 혁신자인

파거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일본에 국제적인 경계의 높초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세기의 불미스러운 사고판에 접착하여 어지러운 파거를 담습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세기가 바뀌었지만 군국주의 유탕당물속에서 해여 나오지 못하는 일본에 어려운 초점이 돌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일본의 파거청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원래 일본의 파거청산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인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였다. 제 2차 일본에서는 오늘까지 수시로 정권교체가 있었다. 새로 출현하는 정부마다 자기식의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정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어느 집권당 국도 파거죄 문제를 똑바로 밝힌 것이 없다. 반세기 이상이나 불미스러운 파거를 이해할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저지른 일본에 있어서 파거청산보다 더 중요하고 치박한 문제는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일본이 그릇된 파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보다 자자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파거청산은 해도 되고 암해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지난 시기 아시아인들의 『아이언 마임』을 알고 있다. 『유감』이니, 『사과』니 하는 한두마디의 걸치떼발로 사죄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그런 오그랑수로 파거청산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 큰 오산이다. 일본당국자들은

방하는 이른바 『사과』와 『반성』은 거짓이며 민심을 사기 위한 기만이다.

파거 일본이 저지른 죄행은 너무도 엄청나며 그것은 결치례의 몇몇 디 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장난은 벽면 해도 필요없다.

오늘 국제사회의 우려거리로 일본의 파거청산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에 있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사회에 대고 지난 날 『량심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저들이 『죄를 지운 것은 없다.』느니, 일본의 파거행동을 범죄로 규정할 국제법이 없다느니, 파거문제는 이미 청진되었다느니, 뛰어난 파거의 범례를 놓고 있다. 지난 일본이 유미렬강으로부터 그 누구를 『해방』시켜주었고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게 『현대문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아시아인들은 일본의 『해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파하기 그지없는 모독적인 맘 달랑기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죄행을 미화분식하며 정당화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죄악에 찬 저들의 파거를 미화분식하고 있는 것은 제순으로 제눈을 끄는 우둔한 것이다.

지난 날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말로나 글로써는 다 읊길 수 없다.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4 0여년에 걸친 오래 세월을 가혹한 죽인자에게 생활을 강요하였다. 2 0여명의 조선남녀들을 강제행여 『황군』의 성노리개로 만든 류례 없는 특대형 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리나 일본은 파거의 죄행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지난 시기 일본의 파거청산은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제무대에서 높

이 울려나왔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기 일제에 의해 학대를 당한 누질랜드와 영국의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파거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들어대었다. 일본파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서까지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오늘도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과 지역회의들에서는 일본의 파거죄행을 폭로단죄하며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온다. 국제민주법을 기회로는 저난 시기 일제가 저지른 모든 죄행들을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통합하게 침해한 국제법위에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국가적 및 법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용당한 일이다.

제국적 추세를 보아도 일본은 파거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파거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지난 시기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나라들이 파거청산에서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 도이월란드는 파거의 전쟁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아니라 개별적 사람들에게까지 죄적인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파거와 결별하려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끌려들었던 다른 나라들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리를 하였거나 하고 있다.

파거청산은 일본자신이 국제사회

지역에 전출하여 작전을 벌리려 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을 금지한 협정조항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해군사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임제가 그대로 침전된 군국주의 물웅쟁에서 군국주의 유행이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오늘도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과 지역회의들에서는 일본의 파거죄행을 폭로단죄하며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온다. 국제민주법을 기회로는 저난 시기 일제가 저지른 모든 죄행들을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통합하게 침해한 국제법위에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국가적 및 법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제국적 추세를 보아도 일본은 파거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파거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지난 시기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나라들이 파거청산에서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 도이월란드는 파거의 전쟁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아니라 개별적 사람들에게까지 죄적인 배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파거와 결별하려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끌려들었던 다른 나라들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리를 하였거나 하고 있다.

파거청산은 일본자신이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떠나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청년들의 관심사와 희망을 무시하는 것은 큰 오류로 되며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

청년문제의 중요성을 강조

류니지대통령 진엘 아비딘 벤 알리가 1 4일 한국에서 열린 청년회의 청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경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전진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시국민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9 1 9공동성명에 지적으로 별도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개 대판제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시국민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제도가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전진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시국민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제도가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전진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시국민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제도가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전진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당시국민들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기대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제도가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반향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창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목소리는 우리 나라를 냉문한 외국인들 속에서 높이 울려나왔다.

브. 다와도트워 풍물 주제사상과 군사장관구현회대 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핵합세계의 반공화국 압살활동을 짓수시면

여러 분야에서 캐나다 정파를

기록하고 한 걸침이다.

다사르 카라다그 브리기에로동 대표단 단장은 선방문기 간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정치군사강국, 자주의 성세로 전변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펼쳐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결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나톨리 룰코프로씨 연예번

강경년주제사상연구대 표단 단장은 조선인민의 선군정치는 세계가 따라온다. 할 본보기로 되고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집드로이 총공작전에 떠나온 조선인민은 자기 목표를 반드시

제기하고 한 걸침이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비슈와나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홍분된 심정을 이렇

고 퍼려하였다.

선군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

선인민은 기세 충천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

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깊은 감

동을 받았다.

조선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부

강조국을 건설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강경년주제사상연구대 표단 단장은 조선인민의 기세로 혁명과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해 공동사설을 여려나라에서 보도

네 팔신문 『아르판』, 편란드신문 『깐싼 애네이』, 우간다국가 라지오방송도 새해 공동사설을 전

하였다. 한편 브라질공공당, 편란드 『코민포름』 통신은 『제널즈』 TV방송, 소리방송은 『조선이 올해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 등의 제목으로 일본 당국자들을 향해 일본을 꺼끌고 어려웠다.

김정일동지의 신문 『데일리 트라스트』와 통신은 『제널즈』 TV방송, 소리방송은 『조선이 올해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 등의 제목으로 일본 당국자들을 향해 일본을 꺼끌고 어려웠다.

신문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나무심기 활발 꾸바에서 지난 해 5만 5 000ha의 면적에 파일

나무들을 비롯한 1억 6 5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라에서는 울레에 또 6만 7 000ha의 면적에 1억 2 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생산 증대

르완다에서 지난해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특히 강네이생산

량은 그 전해에 비해 10여 배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민군기지이전계획을 반대하여 집회

일본 오카나와현의 시모지섬에 체성원들과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시모지섬 비행장의 군사적 이용은 혼용될 수 없다』 등의 구호들을 웨어

면서 현지주민들에게 커다란 피켓을 들고 우기자 펼쳐놓았다.

그는 팔레스타니족족당국은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중지되지는 않는 한 이스라엘과 그

어떤 형상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최근에 발

표된 한 국제적인 조사자로부터 조언되었을 것이다.

신형독감에 의한 사망자 1만 3 500여명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까지 세계적으로 신형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

가 1만 3 554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15일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세계에 들어온다.